



From Dim to Dazzling  
Repurposing with Low-Lit Brilliance



[lowlit.co](http://lowlit.co)  
[business@lowlit.co](mailto:business@lowlit.co)



**Ancient Pot 앵시언트 팻**

HDPE | 115 x 98 x 70 mm

고대 유물을 빚대어 일상품으로 재해석하는 <앵시언트> 시리즈는 45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특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인식합니다. 자원의 긴 여로를 유연한 곡선에 담아 만든 앵시언트팻은 플랜팅에 따라 단조로운 공간에 산뜻한 초목의 생기를 가져다 줍니다. 로우리트는 일회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플라스틱에 대한 기존 관념 Norm 을 해체하는 한편, 여러 세대를 걸쳐 전해질 수 있는 오브제들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앵시언트 팻은 이번 시리즈의 두 번째 라인으로, 목분과 초화, 분재를 담은 플랜터입니다. 획일화된 공산품이 갖는 단조로운 선들에 곡선을 더하고 대칭성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공예품에서 느껴지는 울동감과 생동감을 담아내었습니다. 고려담쟁이넝쿨과 같이 잎과 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양에도 기시감이 없으며, 곧은 철쭉의 가지도 균형있게 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앵시언트 팻은 재활용이 어려운 티끌 플라스틱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크기가 작아 소각, 매립되고 마는 티끌 플라스틱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로우리트의 수거 네트워크를 통해 모아지며, 지역 시니어 근로자의 원료화 작업을 거쳐 제품에 활용됩니다.



**Vecca Series 베카 시리즈**

PP | 330 x 330 x 460, 1000 x 330 x 460 mm

<Vecca Series(이하 Vecca)>는 플라스틱의 일회용성에 도전하기 위해 고대와 현대의 디자인 요소를 융합한 지속 가능한 가구 라인입니다.

Vecca는 청동기 시대의 고대 거석 기념물인 고인돌로부터 영감을 받은 형태로, 가구 라인의 다리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기념물의 형태를 모방하면서 마법의 균형으로 상단 시트를 고정합니다. 또한 선돌을 연상시키는 가구 라인의 조화는 어떤 공간에도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든, 결합하여 사용하든, 모든 공간을 응집력 있는 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Vecca에 쓰이는 원료는 로우리트 콜렉티브가 개발한 천연 바이오매스로 강화된 재생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폐 플라스틱이 천연 바이오매스와 융합되면 내구성과 지속성의 품질은 높아지며, 그 결과 Co2 감소와 가구의 구조적 안정성 및 수명 향상에 모두 기여합니다.

Vecca는 미학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재료와 생산 공정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암시하기 위해 미묘한 설계 요소가 통합되었습니다. 고대 모티브와 재료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우리의 환경 및 우리가 만드는 물체와의 새로운 관계를 장려합니다.



**TAISAN Bench 태산벤치**

PCR-HDPE, Hemp | 580 x 400 x 470, 1,000 x 469 x 470 mm

한국의 산세와 전통 수목화로부터 영감을 받은 벤치로, 지역 사회에서 모은 티끌 플라스틱과 폐 패각류 부산물 등을 재료로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에서 모티브를 얻은 태산 벤치는 작은 티끌 플라스틱들이 모여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테라조 패턴의 상판은 폐 플라스틱 장난감을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Chandelier 상들리에**

Steel, PCR-HDPE | 650 x 650 x 550 mm

상들리에는 폐 플라스틱과 VOLVO의 폐 배기 파이프를 재료로 제작한 조명입니다. 2023년 부산 디자인 워크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볼보 딜러 샵에서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가공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를 두어 실험적인 방법을 선보였으며, 비대칭적인 형태로 각도마다 다른 형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REST IN PIECE CHAIR RIP체어

Steel , PCR-PP | 550 x 545 x 600 mm

<Rest in Pieces Chair>는 나이스워크샵의 오현석 작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건축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에서 가장 흔히 배출되는 두 재료인 전산볼트와 플라스틱을 결합하여 제작한 의자입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는 공간에서 사는 내내 폐기물 만을 배출하다 편히 잠드는 (‘rest in peace’) 인간과 달리, 쓰임이 끝난 이후에도 조각으로서 남아 있는 부산물들로 편리를 추구하는 의자를 만듦으로써 아이러니함을 표현하였습니다.



### REFFY 리피

Bio-composite | 1200 x 250 x 500 mm

리피는 산호초 군집의 형태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듈형 파티션으로,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전시장의 설치 구조물들을 대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교차되는 구조물을 통해 겹겹이 쌓아올릴 수 있으며, 해체 및 설치가 용이하여 대여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피는 안동 대마 재배지역에서 나오는 헬프 부산물과 티끌 플라스틱을 합성한 재료를 3D 프린팅하여 제작되며, 파손 또는 폐기 시, 분쇄, 원료화 과정을 거쳐 산호초 군집의 일부로 다시 재생성될 수 있습니다. 탄소를 가장 많이 포집한다고 알려진 산호초는 기후위기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호초 군집이 만들어내는 전시 구조물을 통해 관람객은 플라스틱 담론을 일상의 접점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